



## 아름다운 선율에 처연함을 더하다

### 파리하고 가냘픈 여인들

결핵이 음악 역사에서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이다. 결핵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길지만, 결핵이 하나의 병으로 인식된 때가 바로 19세기였기 때문이다. 1839년에야 다양한 증세에 ‘결핵(tuberculosis)’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1882년에 결핵을 일으키는 ‘결핵균’이 발견되었다. 음악계는 이 새로운 질병을 받아들여 길이 남을 오페라를 남겼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작품이 1853년작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와 1896년작 <라 보엠(La Boheme)>이다.

결핵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온 질병이다. 인간의 삶과 정열, 사랑을 담은 음악에도 결핵은 깊은 연관을 맺어왔다. 그중에서도 19세기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결핵과 관련한 예술 작품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다. 병과 싸우며 영혼을 불사른 음악가 쇼팽의 생애와 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오페라들을 소개한다.

음악계는 이 새로운 질병을 받아들여 길이 남을 오페라를 남겼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작품이 1853년작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와 1896년작 <라 보엠(La Bohem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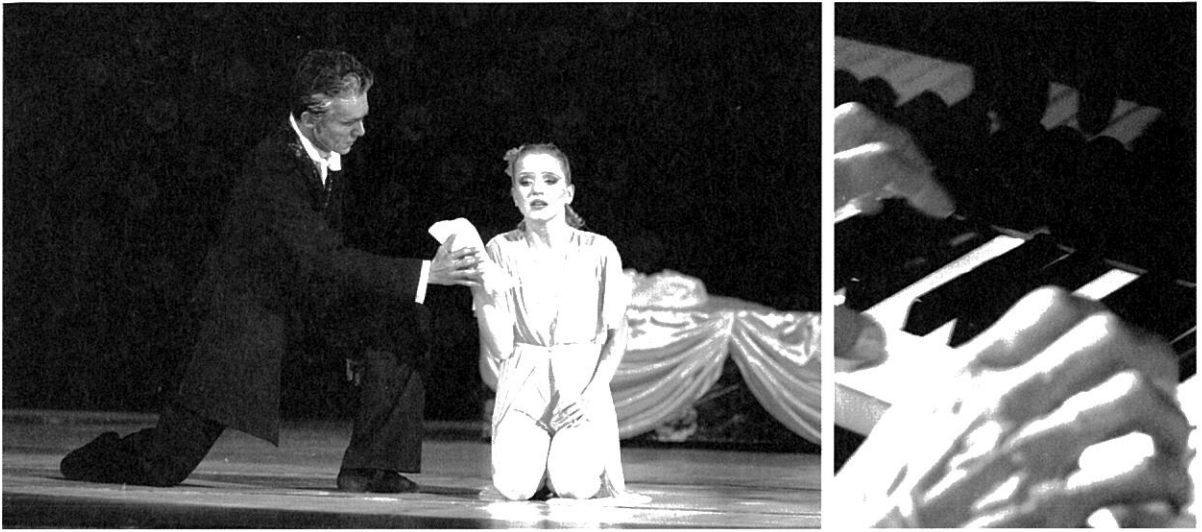
<라 트라비아타>의 주인공 '비올레타'와 <라 보엠>의 주인공 '미미'는 결핵 환자이다. 파리한 얼굴과 가녀린 몸매는 결핵 환자의 대표적 증상이었고, 비극적 사랑의 여주인공에게 어울리는 표지이기도 했다. 사랑받는 여인은 아리따고 연약해야 한다는 편견은 19세기에도 여전했던 것이다.

<라 트라비아타>는 '뒤마'의 소설 <동백꽃 여인>을 각색해 작곡가 '베르디'가 3막의 오페라로 탄생시킨 작품이다. 우리에게는 <춘희>라는 제목으로도 유명하다. 프랑스 파리 사교계의 꽃인 비올레타는 결핵을 앓고 있는 여성으로, 매일 밤을 파티로 보내며 자신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듯이 삶을 흘려보낸다. 우리 귀에 익숙한 '축배의 노래'가 비올레타의 파티에서 등장인물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다.

비올레타 앞에 나타난 남자 주인공은 귀족인 '알프레도'다. 알프레도의 마음을 받아들인 비올레타, 두 사람은 그렇게 동거를 시작한다. 생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귀족 알프레도 대신 비올레타가 두 사람의 생활을 책임진다. 그러던 중 알프레도의 아버지가 비올레타를 만나러 와서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 제발 헤어져 달라고 부탁한다. 요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난한 여주인공에게 돈이 담긴 봉투를 들이미는 부모의 역할은 이렇듯 유래가 깊다.

이야기의 전개는 익숙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알프레도를 떠나 병이 더욱 깊어지는 비올레타, 그녀가 떠난 이유를 오해한 알프레도,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오해를 풀고 사랑을 확인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 비올레타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 현대 드라마에서는 암이나 백혈병의 자리를 결핵이 차지했던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병명의 변화는 결핵이 예방과 완치 가능한 질병이 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 가난하고 불안정한 보헤미안의 생활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도 <보헤미안의 생활>이라는 '뮌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 오페라 역시 파리가 배경이다. 작곡가는 여주인공 '미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노트를 남겼다. "그녀의 얼굴은 귀족적인 타입이며, 자태는 놀랄 만큼 바르고 곱다. 그녀의 혈관을 달리는 청춘의 뜨거운 피의 흐름은 그녀의 투명한 피부를 장밋빛으로 물들여 동백꽃과 같이 부드럽고 깨끗한 느낌을 준다." <라 보엠>을 <춘희>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한 설명이다. 결핵에 걸린 처녀에 대한 19세기의 시선을 읽을 수가 있다.

미미는 다락방에서 수를 놓는 가난한 아가씨다. 역시 다락방에 살고 있는 시인 '로돌포'의 열정을 이해하고 있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미미의 손을 잡고 로돌포가 부르는 아리아의 제목은 '그대의 찬 손'이다. 미미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미미와 로돌포의 사랑은 광적인 것이어서 술한 싸움이 벌어지고, 두 사람은 미미의 병세를 치료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도 없다. 미미를 책임질 수 없는 로돌포, 그녀가 돈 많은 남성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비롯하여

이별을 선언한다. 허약해진 미미가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오고 사랑했던 지난 날을 회상하며 숨을 거두게 된다. 결핵이 소재인 오페라에는 가난이라는 요소가 빠지지 않는다. 결핵이 영양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식이요법으로 체중감소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결핵에 걸리곤 하는 현대에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 요소다.

### 피아노의 시인 쇼팽

예나 지금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은 생활이 평탄치 못하다는 선입관이 있다. 실제로 많은 음악가들이 가난 속에서 작품 활동을 펼쳤다. 19세기 음악가 가운데서도 결핵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다.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쇼팽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1810년 폴란드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활동한 쇼팽은 예술가의 피가 흐르는 집안 출신이다. 어머니와 누나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음악을 듣고 자란 쇼팽은 여섯 살 때부터 그 선율을 재현했다고 한다. 재능을 널리 인정받아 여덟 살에는 이미 공개 연주를 시작했다. 이 피아노의 천재가 남긴



chopin



작품의 양도 방대하다. 쇼팽은 피아노 협주곡과 55곡의 마주르카, 13곡의 폴로네즈, 24곡의 전주곡, 27곡의 연습곡, 19곡의 야상곡, 4곡의 발라드, 4곡의 스케르초를 남겼다. 좋은 부모와 선생, 후원자를 만났지만 쇼팽의 삶은 전반적으로 곤궁했다.

쇼팽은 결혼하지 않고 고독하게 생을 마쳤지만, 작품에 영향을 끼친 몇 명의 연인이 있었다. 뒷이야기로는 기침과 객혈을 하며 음악에 몰두하는 쇼팽의 모습에 당시 귀족 부인들이 열광했다고 전한다. 쇼팽의 연인 가운데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소설가 '조르주 상드'이다. 쇼팽보다 여섯 살 위였던 상드는 유럽 여성 문학의 개척자로, 여러 남성과의 연애로도 유명했다. 두 아이를 데리고 혼자 파리에 머물던 상드는 모성애로 쇼팽을 감쌌다. 둘의 관계는 1830년대 후반부터 10년간 이어진다.

쇼팽의 결핵 증세가 심해진 것은 조르주 상드와의 동거 기간 동안이다. 조르주 상드는 자신의 아이들과 쇼팽을 데리고 스페인 마요르카의 오두막 별장에서 지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쇼팽이 아닌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1838년에서 1839년으로 가는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다. 과민해진 쇼팽의 병세가 심상치 않자 상드는 마요르카를 떠나 마르세이유에 석 달간 머물며 쇼팽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했다. 다시 파리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은 관계를 유지했다. 상드는 여름마다 파리 근교 '노양'의 시골집으로 쇼팽을 데려가 그의 휴식과 요양을 도왔다. 그러나 1847년에는 이런 여름이 돌아오지 않았다. 상드와 헤어진 쇼팽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1849년에 숨을 거둔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 도시 빈민 계층에서 결핵이 만연했던 19세기는 가히 결핵의 세기라 칭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 예술가들에게 결핵은 '천재와 미인의 병'이었다. 병의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예방과 처방이 이루어지기까지, 결핵을 둘러싼 신비로운 이미지는 19세기 내내 깨어지지 않았다. 의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온당하지 않은 이미지였으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훌륭한 예술 작품을 남겨 준 것은 다행한 일이다.†